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1월 20일
제1923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루카 23, 36-39)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 프라 안젤리코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다해)

제 1 독서 2사무 5,1-3 |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화답송 시편 122(121)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서 콜로 1,12-20 |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복음 루카 23,35L-43 |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³⁵“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³⁶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³⁷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³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³⁹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⁴⁰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⁴¹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⁴²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⁴³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이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해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올해는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고 자주 읽으며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복음 묵상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에 한 해 동안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성찰에 필요한 실마리를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제1독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이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며 그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한편 제2독서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에, 성자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해서 창조되었으며,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총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빈정대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라며 그분을 모독하지만, 다른 이는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화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웃과 화해하였습니까?

<김상우 바오로 신부>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시편 119[118],14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른여덟 번째 성서 주간을 맞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과 친교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몇 해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강제된 비대면의 시기, 곧 '언택트'(untact) 시대를 지내 오다가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며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온택트'(ontact)의 생활 양식이 대세가 되는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공동체의 모임이 중단되자 신앙생활의 중심인 전례와 성사에 신자들의 참여가 물리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미사'가 '대송'의 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영적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고자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사목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는, 더욱 높아진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을 채워 주고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을 시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다가가기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신앙생활과 그에 따른 실천은 분명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례와 성사,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그 첫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현장에서 믿는 이들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한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 일치로 구원에 이르며, 그 구원을 이웃과 친교하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동트기 전 새벽 어둠이 가장 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짙은 어둠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요한 1,14; 8,12 참조).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그침없이 기도하고자 새벽이 오기 전부터 일어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주님과 맺는 인격적 만남입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물리적인 임시방편을 찾을 수는 있지만, 차츰 회복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편의에 따라 신앙의 임시방편을 선호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집인 교회의 전례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고,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친교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 행동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말씀께서 교회 활동 전체를 이끄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주님의 말씀', 73항 참조), 비록 아직 어둡지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어둡고 힘든 세상에 말씀이 희망의 선물로 주어졌으며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빛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

1 2차 헌금

• 이번 주일 미사 중에 인류 발전 캠페인(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0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0일(일) 오전 11:30 (A-1,2,3,4)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0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루카회 월례회의 (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11월 27일(일) 오전 11:30 (B-3)

6 요한회 월례회의 (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11월 27일(일) 오전 11:30 (B-1,2)

7 K o C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7일(일) 오전 11:30 (B-4)

8 대자녀 신앙으로 인도하기 프로젝트

• 일시 : 11월 20일(일) 오전 11:30 (하상관#110)
 • 새 신자, 대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미사에 대한 지식 나눔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9 첫 영성체반 등록

• 2023년도 첫 영성체반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 10시 미사 후 30분 / 2시 미사 전 30분 (하상관 로비)
 • 문의 : 윤정 보일 (703) 371-3589

10 2023년 매일미사 책 신청 및 병초(Box)주문

• 성물부에서 2023년도 매일미사 책과 제대초 봉헌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물부에 문의해 주세요.



성당에서 Fair Lakes Pkwy / Stringfellow Rd로 나가실 때 교우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를 요망**하는 표시판을 설치하였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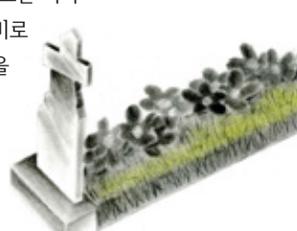
세례성사를 통해(23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 속에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새 영세자분들께서 \$1,210을 본당에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위령성월

○ 위령성월 기도문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축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Year Two Prayer

“My soul rejoices in the Lord.”

PREPARATION YEAR TWO: REJOICE

O Mary, Mother of the Church, in you the Word became flesh. All generations rejoice to call you blessed, for the Al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you and through you.

As we prepare to celebrate our Golden Jubilee, help us to rejoice with you as we remember the great things that God has done for us.

Help us to imitate you, in receiving the Word, your Son, and bearing the Word to the world.

For He lives and reigns for ever and ever. Amen.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1월 13일(연중 제33주일)

주일 헌금	\$ 6,730.00
교무금	\$ 10,920.00
교무금(신용카드)	\$ 2,100.00
감사 헌금	\$ 550.00
2차 헌금	\$ 4,121.00
온라인 봉헌	\$ 250.00
합계	\$ 24,67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11월 24일(목) 오후 5:00 - 6:00
- 11월 25일(금) 저녁 8:00 - 9:00
- 11월 27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성지 매혹의 땅을 가다:
콧트교회 주님 탄생 예고 대성당
3. 한국 교회사 : 복자 방 프란치스코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